

# 스타트업 전문변호사 생긴다

대한변협, 스타트업 수요 증가에 새로운 '전문 분야'로 추가 지정  
대형로펌도 스타트업에 러브콜  
"미래 유니콘기업 선점 의지"



스타트업의 위상이 법조계에서 거세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스타트업을 새로운 '전문 분야'로 추가한 것.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스타트업을 새로운 전문 분야 변호사로 추가하고, 특정분야 전문성이 있음을 협회가 알렸다.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등록자격이 주어진다. 법조경력 3년 이상이 필요하고,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분야에 따라 최근 3년 내 10~30건 이상 사건을 수임해야 한다.

새로 추가된 스타트업 분야를 포함하면 대한변협 내 전문 분야는 총 60개다. 스타트업 전문 분야는 1년 이상 내부회의 끝에 신설됐다. 스타트업 사업 영역이 다양해서 다른 전문 분야와 중복될 우려가 있었지만 일선 변호사의 높은 관심을 반영, 최종 지정됐다. 스타트업 법률 수요가 지속 증가세에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전문 분야로 등록된 변호사는 IT 14명, 지식재산권법 52명, 특

허 17명, 회사법 19명, 방송통신 8명, 스타트업 1명 등이다. 변호사 1인당 전문 분야를 2개까지 등록할 수 있어 스타트업 전문 분야 변호사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스타트업과 관련한 분야는 저작권 등과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법률 분야로 인정하고 대형 로펌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던 측면도 있다. 세종, 태평양, 한결 등은 지난해 스타트업이 모여있는 판교에 사무소를 열기도 했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대형로펌이 스타트업 협회에 먼저 세미나를 제안하며 적극 나선 사례는 이례적"이라면서 "차기 유니콘이 될 스타트업을 미리 선

점해서 관리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중윤 대한변협 대변인은 "스타트업 위상이 법조계에서 커진 것은 법조계 인력이 충분해지고, 스타트업 규제 이슈가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며 "변협이 전문분야로 스타트업을 만든 것은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회사 설립 단계를 비롯해 세무, 특허, 노무, 금융 등 회사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법률 문제를 윈스탑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가 스타트업 전문변호사로 활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 법학 전공 로스쿨합격률 '뚝'

작년 법학계열 출신 합격률 18.45%  
사법고시 폐지 → 3년 만에 '반토막'  
사회·상경계열 합격자 지속 증가세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경로가 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중 학부 법학 전공자의 합격자가 최근 3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대신 사회계열·상경계열 합격자는 증가했다.

19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2009학년도~2019학년도 전국 25개 로스쿨 합격자의 출신 계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로스쿨 합격자 중 법학계열 출신은 18.45%로 로스쿨 도입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하락했다.

법학계열 출신 로스쿨 합격자는 로스쿨 도입 첫 해인 2009년 35.24%에서 2013년 55.36%로 증가한 이후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인다.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법고시가 완전 폐지되면서 최근 3년 만에 절반 수준이 됐다.

반면, 사회계열·상경계열·인문계열의 로스쿨 합격자는 2013년 이후 지속 증가했고, 2018년부터는 사회계열과 상경계열 합격자가 법학계열 합격자를 넘어섰다.

로스쿨 응시를 위해 필수로 치러야 하는 법학직성시험(LEET) 올해 응시자 역시 상경계열이 전체 응시자의 21.8%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법학계열(21.1%) 전공자를 앞섰다.

이는 로스쿨 도입 이후 서울대를 비롯해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

대, 이화여대 등 주요 대학들이 학부에서 법대 모집을 없애고 로스쿨 대학원 모집으로 바꾸면서 로스쿨 지원자들이 학부에서 법대 대신 경영대, 사회과학대 등에 진학한 때문이다.

특히 상위권 대학 로스쿨 합격자의 경우 서울대 등 주요대 경영대나 사회과학대 출신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대 로스쿨 합격자 출신 전공계열을 보면 상경계열이 65명, 사회계열은 29명이었고, 고려대와 연세대 로스쿨 합격자 역시 상경계열, 사회계열 순으로 많았다.

법학 이외 전공자의 로스쿨 합격자 증가는 다양한 분야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취지에 부합하지만, 서울 주요대 상위권 학과 출신들이 로스쿨을 독식한다는 지적은 여전한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 로스쿨 관계자는 "사법고시에서는 출신 대학에 관계 없이 시험을 잘 치면 법조인이 됐으나, 이제는 지방대 출신들의 로스쿨 입학부터 더 힘들어지게 됐다"며 "로스쿨의 수도권-지방의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0학년도 로스쿨 원서접수는 9월30일~10월4일까지, 면접일은 가군은 10월28일~11월10일, 나군은 11월11일~24일까지 대학별로 실시된다. 앞서 오는 30일, 31일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로스쿨 공동 입학설명회가 열린다. 【한용수 기자 hys@】



코스피 상승 마감

19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1927.17) 대비 12.73포인트(0.66%) 오른 1939.90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591.57) 대비 3.08포인트(0.52%) 오른 594.65에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10.8원) 대비 0.2원 오른 1211.0원에 마감했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 코스닥도 영업이익 0.57%, 순익 15.60% 하락

>> 1면 '상장사 실적...'서 계속

분석대상기업 32.7% '순익 적자'

한편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12월 코스닥시장 결산법인 1153사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개별·별도기준으로 65조5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8%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모두 각각 0.57%, 15.60% 줄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매출액순이익률 모두 각각 0.24%포인트, 1.06%포인트 하락했다.

정보기술(IT), 제약, 오락·문화 등 코스닥시장 대표업종은 모두 전년보다 매출액이 늘었다. IT, 제약은 순이익

(2019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기업실적)

단위: 억원

구분	'18년 상반기	'19년 상반기	증감	증감률(%)
매출액	5,956,686	5,815,902	-140,784	-2.36
영업이익	595,550	331,628	-263,922	-44.32
법인세차감전순이익	641,427	370,731	-270,696	-42.20
순이익	488,819	295,598	-193,221	-39.53
매출액영업이익률(%)	10.00	5.70	-4.30	-
매출액순이익률(%)	8.21	5.08	-3.12	-

【자료=한국거래소】

역시 증가한 반면 오락·문화업종 순이익은 감소했다.

IT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3.47% 증가했고 순이익은 3.57% 줄었다. 제약은 매출액(6.95%)과 순이익(117.57%) 모두 늘었으며 오락·문화는 매출액이 17.99% 증가한 반면 순이익 부분에서는 적자로 전환했다.

분석대상기업 1153사 중 776사(67.30%)는 올 상반기 순이익 흑자를 시현한 반면 377사(32.70%)가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660사(57.24%)는 전년 동기과 동일하게 흑자를 시현했고 116사(10.06%)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직장인 추석 경비 작년보다 10만원 줄어"

기혼 46만원... 평균 35만원 예상

났다.

다가오는 추석연휴 직장인들은 평균 35만원을 지출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사람이인 직장인 2404명을 대상으로 '추석연휴 예상 지출비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3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45만원)와 비교해 10만원 줄어든 수준이다.

지출 금액별로 '20~30만원 미만' (21%)이 가장 많았으며, '10~20만원 미만' (16.7%), '30~40만원 미만' (15.3%), '10만원 미만' (13.8%), '40~50만원 미만' (13.4%), '50~60만원 미만' (8.8%) 등의 순이었다.

기혼 직장인은 46만원을 쓸 것으로 예상해 미혼 직장인(29만원)보다 1.5배 이상 많이 지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

났다. 직장인 10명 중 9명(89.6%)은 추석 경비 지출에 부담을 느낀다고 했고, 부담스러운 경비(복수응답)로는 '부모님 및 친지 용돈' (64.8%)이 가장 컸고, 이어 '선물 구입 비용' (28.2%), '외식, 여가 등 추가 지출 비용' (19.6%), '차레상 및 명절음식 준비 비용' (18.5%), '귀성 교통비' (15.4%)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중 60.3%는 고향을 방문할 것이라고 답했고, 예상 귀성일은 추석연휴 시작일인 '9월12일' (42.6%)이 가장 많았다. 이어 '추석 당일(13일)' (24.1%), '11일' (23.7%), '10일 이전' (7%), '14일' (1.2%) 등이었다. 예상 귀경일은 '14일' (36.2%), '13일' (28.3%), '15일' (20.1%), '12일' (7%), '16일' (4.6%) 등이었다. 【한용수 기자】

# 건설현장 2500곳 산재 예방 '집중점검'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강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형건설사 시공 현장 300여곳, 중·소규모 건설 현장 2200여곳 등이다.

정부는 우선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가운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

체 현장 300여곳에 대해 불시·집중점검을 한다.

또한 중·소규모 건설 현장 3만여곳 중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2천 200여곳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1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 현장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 현장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점검한다.

【석대성 기자 bigstar@】